

엔데믹 시국 제주 하늘길 '유탄' 현실화

최근 항공사들 제주기점 운항편수 줄여 국제선 투입 좌석 부족하자 항공권 가격 상승... 관광객·도민 분노 SNS 통해 항공업계 행태·제주도정 무능력 대처 비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국이 끝나가는 올해부터 제주 하늘길 항공편 운항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항공요금이 폭등하자 '출륙금지령'이라는 지적까지 쏟아내는 등 제주도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8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저비용항공사 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도 동남아와 일본지역 중단거리 노선에 항공편을 재취항시키

며 국내 노선 운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8일 제주공항 제주 기점 항공 운항편수는 출발 235편, 도착 235편 등 470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출·도착 490여편보다 20여편 줄었다.

이로인한 좌석난은 지난 1월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선 항공편은 1만3429편, 공급석은 250만6300석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1만4567편, 277만7042석보다 9.7%나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문제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간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중국 직항노선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국제선 편중으로 인한 국내 제주노선 좌석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좌석난이 악화되자 제주노선의 항공료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네이버에서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제주와 김포간 항공권 가격은 편도 10만원 이하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다녀온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왕복

10만원선이면 다녀오던 서울노선 항공권이 이젠 10만원으로 편도도 구매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항공권 부담이 높아지자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특별이를 위해 해외노선으로 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는 항공사의 배신 행위와 이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제주도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제주 항공권 가격이 25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의 출륙금지령... 조선시대도 아니고..."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국정원 도내 진보계열 공안수사 확대

18일 진보당 도당위원장·농민회 사무총장 체포 시민단체 "공안몰이 표적삼아 여론재판" 규탄

국정원과 경찰이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공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15분쯤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실 인근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박현우 도당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8시30분쯤 도당 사무실 이전 작업을 하던 박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며 약 40분간 도당 관계자와 대치한 끝에 박 위원장을 연행했다.

또 국정원은 이날 오전 8시1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체포영장에는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제주경찰청과 국정원 제주지부로 각각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공안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그해 12월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의 자택도 차례로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북한 지령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공안탄압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진보단체를 공안몰이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 등이 체포된 직후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진보단체 등을 공안몰이의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 하듯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산행 늘면서 산악사고도 많아졌다"

서부소방서 최근 3년 225건 출동해 109명 구조

최근 3년간 제주 서부지역에서 225건의 산악 사고가 발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서부소방서 관내 산악사고 출동건수는 2020년 46건, 2021년 85건, 2022년 94건 등 총 22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구조 인원도 2020년 18명, 2021년 44명, 2022년 47명 등 총 109명으로 집계됐다.

산악 사고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산행에 나설 때는 안전 장비를 갖추고 산악 위치 표시판의 고유번호를 확인하며 산행하고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켜두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늘어나는 산악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간 한라산 관음사 코스와 바리메오름, 노포메오름 일대에서 119구조대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난 사고 및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자연 확보물 활용과 수평·수직 구조 ▷재난안전 통신망 및 위성전화기 통신 점검 ▷스마트폰 GPS 활용 조난사고 대응 ▷산악사고 대응절차 및 안전사고 방지도육 등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영등할망 오십니다" 19일 영등할망이 처음 찾아오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복개덕에서 영등신맛이 환영제가 열렸다. 강희만기자

불법조업 어선 2척 나포

제주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제주도 환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185k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승선원 각각 14명·13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어획물 적재량을 우리나라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늦은 밤 벌어진 음주 차량절도 추격전

만취 20대 택시타고 귀가 중 택시 훔쳐 8km 운전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11분쯤 제주도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택시 승객 A씨가 50대 택시기사 B씨의 차량을 훔쳐 달

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도내 전

지역에 도난 차량을 수배하고 수색에 나섰다.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기록된 A씨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위치 추적을 실시, 신고 접수 40분만인 오후 11시53분쯤 8km가량 떨어진 제주도 오라2동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2차 사고 등의 피해는 없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IP55 방진방수인증

※ 농협중앙회 자체계약업체 ※ 조달청 상품 등록업체

특허 제 10-2078975호
특허 제 10-2182942호
특허 제 10-2451228호

항토기업 (주)팜그린텍

2023년 FTA 보조사업 전문

<p>시설하우스 태풍피해 대비 제품</p> <p>환풍기(800W)</p> <p>환풍기 기능을 통해 비닐하우스내 내습을 높여 태풍으로 부터 하우스 지지 및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p>2023년 FTA 보조사업 품목</p>	<p>결상에 대비한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p> <p>태풍 또는 기타 사유로 전원 정전(결상)시 자동개폐기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고온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제10-2196685호 • 정전(결상)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변환 고온피해 예방 <p>2023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p>	<p>하우스지킴이</p> <p>고온,저온 설정 범위 초과시 휴대폰 알림기능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와 연동시 상변환 알림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5인까지 휴대폰 알림등록 가능 	<p>공기교반기(60W, 130W)</p> <p>교반기(60W) 교반기(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제 10-2078975호 • 바람관 도출구로 인해 공기유출 사리지대 최소화(특허) <p>상분리 제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인 상분리 먼 제거 기능 • 자동,수동 모드 • 온도,시간 설정에 따른 제어 기능 	<p>송풍팬(60W, 130W)</p> <p>송풍팬(60W) 송풍팬(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이프 재질로 고품위가 있어 안정적이고 갈라진 송풍팬 사용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p>모터(60W, 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제10-2078975호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	--	--	---

신입사원 모집
제품 조립 및 현장 설치작업 (워크넷 채용모집 참고)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